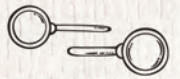




2020

드림스토리

2020 Dream Story



www.dreamcenter.or.kr



서울특별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20 Dream Story CONTENTS



02 쿠키인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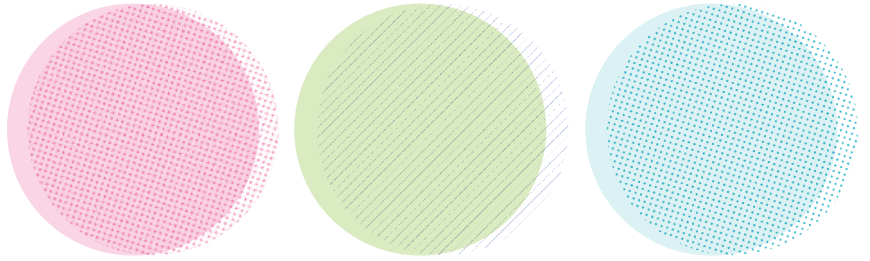
드림센터 청소년 인턴십이란?	2
여느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함께해주세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장 김해영	3
인턴십 단체사진	4

01 바리스타인턴십

알차고 즐거운 바리스타인턴십 20기 손세빈	7
내게 꿈의 도움닫기가 되어준 바리스타인턴십 20기 엄세라	8
바리스타 실습을 하면서 배운 점과 느낀 점 20기 박세린	9
새 출발이 되어준 인턴십 20기 한겨레	9
내 인생 또 하나의 기회, 바리스타 인턴십 21기 이수정	10
꿈에 더욱 가까이 가게 도와준 바리스타인턴 21기 허정훈	11
편하고 재미있었던 바리스타인턴십 22기 오자현	12
커피가 처음인 청소년에게도 쉽고 재미있는 인턴십 22기 이재인	13
게으른 나를 움직이게 한 바리스타인턴십 22기 조소현	13
내 일상에 큰 도움이 된 바리스타인턴십 22기 홍예슬	14
어려움 속에서 만난 희망 활동자립팀 고재일	15

인턴십은 끝났지만, 새로운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 12기 김주영	17
나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 시켜준 쿠키인턴십 12기 최예빈	18
협동심이 필요한 쿠키인턴십을 하며 변화된 나의 모습 12기 김수민	19
드림센터는 희망의 공간, 쿠키인턴십은 또 다른 도전 12기 이준용	19
지식을 주는 장소이자, 저의 꿈을 도와준 곳 12기 김문지	20
인턴십 재미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봐 12기 김근우	20
코로나야 빨리 끝나라 12기 김석주	21
다른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 도전하세요! 12기 강사랑	21
진로를 찾고자 시작하게 된 쿠키인턴십 12기 강산	21
나의 꿈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해줄 수 있는 곳 13기 김가원	22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13기 임시완	22
재미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와봐 13기 김근우	23
나에겐 또 다른 학교이며 배움터인 이곳 13기 김문지	23
나에게 드림센터는 ‘친구’ 그 자체 13기 김민서	24
집에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쿠키인턴십 13기 김주영	24
꿈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직진해봐	
그것이 곧 자신의 미래이자 꿈일 테니 13기 송성희	25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 14기 권영선	25
도전할 친구들에게는 모두 추천합니다 14기 김문지	26
용기를 얻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길 14기 김민서	26
제과에 대한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도움이 된다 14기 박은주	27
열심히 한 내 자신이 대견해졌다 14기 배승민	27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며 나아가는 곳 14기 정다은	27
우리가 소중하다고 알려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주는 곳 14기 손세빈	28
여러분들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든 결국에는 해낼 것 활동자립팀 조미정	28





03 목공인턴십

드림센터는 좋은 기억만 남아 있는 곳 3기 송은주	30
목공인턴십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4기 강건우	31
목공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 좋은 경험 4기 권예원	31
또 하고 싶은 목공인턴십의 추억 4기 송은주	32
목공이라는 좋은 경험에 감사하며 4기 윤소연	32
매일 기대감을 갖게 해준 목공인턴십 4기 이지원	33
목공이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만난 친구들 활동자립팀 김재윤	34



04 놀이터인턴십



인턴십은 나의 생활습관 상반기 김민선	37
부족한 것을 배우며 베푸는 사람이 되기 상반기 정하은	37
두려움을 벗어나 도전하다 상,하반기 1기 정다운	38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출발점 하반기 1기 유은주	38
나를 변화시킨 인턴십 하반기 1,2기 김시은	39
하루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게 해준 시간 하반기 1,2기 이유빈	39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준 인턴십 하반기 1기 김재욱	40
다양한 경험, 배울 수 있는 기회 하반기 1기 정서윤	40
나를 존중하게 된 시간 하반기 1기 박채윤	41
다양한 지식을 쌓는 시간들 하반기 2기 정지원	41
자신감을 되찾다 하반기 2기 배민경	42
사회의 팁들을 배워 생각을 넓히다 하반기 2기 양현진	42
놀이터인턴십 '짱' 활동자립팀 허선영	43
드림센터 기본소양교육	44

드림센터 청소년 인턴십이란??

1 청소년 인턴십 사업 취지

학교 밖 청소년, 취약 계층 청소년 등 경제적 자립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 교육 및 바리스타, 쿠키, 목공, 놀이터 기술교육을 수반한 유급 인턴십을 운영함으로써 참여 청소년들의 관련 직업 기술 습득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사업

2 인턴십 진행 과정

- **상반기** : 2020년 5월 14일~5월 28일, 7월 9일~8월 4일
매주 화, 목 10~17시/ 수, 금 13~17시
- **하반기 1기** : 2020년 9월 1일~9월 29일 매주 화, 수, 목 13~17시
하반기 2기 : 2020년 10월 6일~10월 29일 매주 화, 수, 목 13~17시
- **기본소양교육** : 자존감 향상 교육, MBTI 성격검사, 노동인권 교육, 경제교육, 서비스 마인드 교육, 취업교육(이력서 작성 및 면접 노하우), 성교육, 가출예방교육
- **놀이터인턴십 소양교육** : 자존감 및 사회성 교육, 서비스 매너 심화, 이미지메이킹 심화, 진로탐색 교육 진행

3 각 인턴십 내용

- **바리스타인턴십** : 카페 음료 만들기,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교육, 라떼아트 교육, 드림카페 실습
- **쿠키인턴십** : 쿠키 기본기술 및 실습, 심화과정(제과기능사 자격증 필기(youtube) 및 실기시험 품목 실습), 카페디저트 특강 및 비대면 키트 실습 등 진행
- **목공인턴십** : 나무 특성 이해 및 목공 기자재 기술 습득, 실습을 통한 작품 제작
- **놀이터인턴십** : 드림놀이터에서 안내, 정리, 관리 업무 및 회의 진행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함께 해주세요”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으로서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였기 때문에 공동의 집인 지구를 망가뜨려서 일상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데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게 드림센터에 올 수도 없었고 인턴십을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되어 많이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열정은 식지 않았음을 잠깐 잠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 어려울 때 비대면으로도 잘 배울 수 있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주고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줌이나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사이버 세대인 여러분들은 어려운 현 상황을 잘 해결할 아이디어가 어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동생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비롯한 어른들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장 김해영

2020년 드림센터



상반기 OT 단체 사진



상반기 수료식 단체 사진



하반기 1기 수료식 대표자 단체 사진



하반기 2기 수료식 단체 사진

2020 드림센터 수기집

		01			
	바	리	스	타	
		인	턴	십	

coffee

손세빈
엄세라
박세린
한겨레
이수정
허정훈
오자현
이재인
조소현
홍예슬
고재일





알차고 즐거운 바리스타인턴십

바리스타인턴십 20기 손세빈

안녕하세요. 바리스타인턴십 20기 손세빈입니다. 처음에는 사회성을 기르고 싶기도 했고 커피 만드는 과정과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겨서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이 진행되면서 성교육, 노동인권교육,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노하우 등 유용한 교육을 받으며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리스타인턴십을 하면서 끝까지 해보려는 책임감도 생겼고,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커피를 만들면서도 내 열정과 노력이 느껴져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알려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등 카페 음료를 만들면서 흥미도 생겼고, 커피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몇 번 결석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뭐든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바리스타인턴십 너무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내게 꿈의 도움닫기가 되어준 바리스타인턴십

바리스타인턴십 20기 엄세라

꿈에 그리던 카페 아르바이트생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입학한 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전전하던 때였습니다. 10대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다시 구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카페 아르바이트! 학창시절에 친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아마 멋진 유니폼과 현란하게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제조하는 모습을 동경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카페 아르바이트의 경우 경력과 자격증이 있어야 뽑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조차 못했습니다. 그 생각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아르바이트 구할 때 문득 들었습니다. 드림센터에서 바리스타인턴십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커피를 자주 마시고 좋아하는 저로서는 카페 창업도 생각하고 있었기에 더욱더 유익한 인턴십이었습니다. 덕분에 인턴십 도중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까지의 여정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필기시험 공지가 안 뜨고 있어 오리무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바리스타인턴십에서 필기 문제집도 무료로 배포해 주었고 커피머신을 처음 만지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선생님들의 열정 덕분에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기시험도 영상을 찍어놓고 돌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커피 실기시험과 함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상식들도 교육해줘서 더욱 더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경제 관련 교육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지만 참가자들을 위해 열심히 촬영하면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성교육, 노무교육, 서비스교육, 성격교육 등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커피 기본 교육을 마치고 라떼아트와 본격적인 자격증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가면 볼 수 있는 하트 모양이나 나뭇잎 모양 또는 예쁜 드리즐 모양의 거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직접 하게 되는 날이 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혼자서 하기엔 아직 벅차지만 선생님이 코치해주셔서 만들고 나면 더할 나위 없이 뿌듯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두었고, 마셔보기도 했는데 거품에 맛이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격증반의 경우 좀 많이 위축됐었지만 그래도 실기 시험이 어떤 느낌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드림센터에서 나눠준 필기 문제집을 읽어봤는데 은근히 난이도가 높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거 같아 벌써 서너 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커피의 맛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맛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작 알지 못했는데, 문제집 이론을 보니 그 이유가 적혀 있어 커피에 대해 한층 더 관심이 깊어진 거 같습니다.

공지가 어서 올라와서 필기시험과 실기를 합격하고 하루 빨리 바리스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죠. 어렸을 때는 당연한 걸로만 알았지만 막상 사회생활을 해보니 저에게 무언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도 값진 애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무언가 가르쳐줄 사람도, 또 그만큼 관심 가져줄 사람도 흔치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알아가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와서인지 바리스타인턴십에서 계속 도와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응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멋진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바리스타 인턴십 후기를 마무리하며

바리스타인턴십이 끝나고도 실기연습을 위해 모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돼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침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어린 학생부터 제 나이 또래까지 모두 팀워크를 발휘하여 열심히 배웠던 그 순간을 되새기며, 좋았던 추억과 함께 또 한층 성장한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바리스타인턴십 20기를 함께한 친구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스타 실습을 하면서 배운 점과 느낀 점

바리스타인턴십 20기 박세린



19로 인해 5개월 지난 후에야 개별실습을 했습니다. 개별실습 동안에는 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꿈꾸는 드림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초코, 아이스티를 직접 만들어 보고 판매하는 경험을 했고 포스기를 다루는 법도 배웠습니다. 실습을 하는 동안 먼저 인턴십을 수료하고 카페에서 근무 중인 박기은 선배와 한겨레 선배가 아르바이트할 때 필요한 '꿀팁'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작년이라면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겠지만, 올해는 바리스타를 직접 체험하면서 또래보다 사회생활을 먼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기간에는 매니저님께서 오픈 시간에 방역수칙에 대해 가르쳐주셔서 직접 고객이 쓰는 테이블이나 의자를 깨끗하게 닦기도 했습니다. 고객님의 카페에 편하게 계시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더 나아가 제가 직접 만든 음료를 손님들이 드시는 걸을 보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의 또 다른 카페에서 이번 인턴십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며 활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출발이 되어준 인턴십

바리스타인턴십 20기 한겨레

몇 년 전 자취를 막 시작했을 때, 바리스타 직업훈련도 받고 필기시험도 쳤습니다. 지금보다 게으르고 모르는 게 많았기에 남들 다 붙는 필기시험도 한 번 미끄러지고 훈련도 겨우 수료하는 등 고비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시험을 한 번 미끄러지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 실기연습을 할 수가 없어서 실기시험은 반 포기한 상태로 시간만 보내고 있었지요.

그때 내가 자주 들르던 자퇴생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시립청소년 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바리스타인턴십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막 한국에 퍼지기 시작했을 즈음이었고, 공연계에서 일하고 있던 나는 본의 아니게 일자리가 정리된 상황이었어서 무엇이든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으면 이력이 많이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생활비도 점점 막막해지면서 우울감과 무력감도 찾아오고 있었지요.

부천에서 강남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교통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후기 청소년이고 이미 대학도 다니고 있고, 일 경력도 있어서 안 될 거라고도 생각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께서 나의 의지를 많이 봐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번 인턴십을 잘 끝내지 못하면 내가 정말 심리적으



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학교밖 청소년이었을 때도 찾기 어려웠던 각종 교육들을 받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 대인관계를 쌓으면서 잃을 뻔했던 것들을 이번 인턴십을 통해 많이 지킨 것 같습니다.

교육 중에서는 인성교육과 금융, 취업 관련 교육이 정말 유익했어요.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료도 만들어보고, 매장마다 차이가 있어 헷갈리던 머신 마감 방법도 다시 꼼꼼하게 배우면서 정말 알차게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값이 조금 나가는 재료도 넉넉하게 쓰고, 친구들과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순서를 맞춰 연습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일정이 수차례 밀리거나 변경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이 처음인 친구들이 필기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전문적인 실기 강사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시험 대비부터 라떼아트 수업까지 짧은 시간과 기회 안에서도 열성을 다해 가르쳐주셔서 실력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만난 인턴십 동기들과 담당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겪어본 적 없는 어려운 시기에 친구들이 같이 견뎌주고, 선생님들께서 소통 해주셔서 일정이 변경되고 중단되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나 혼자 지내는 것처럼 되었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 처해있고 다른 시기를 보내고 있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로서 받아들여주고 많은 걸 배우게 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여러 시험이 남아 끝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끝까지 달려준 모든 친구들이 어디서 무얼 하든 잘 되길 바라고, 앞으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알려져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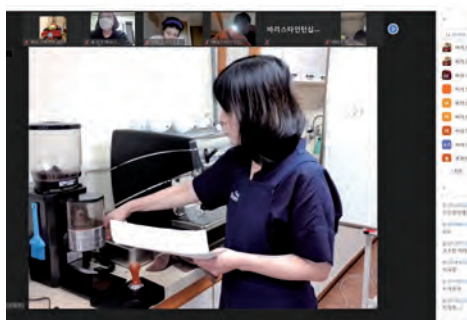


내 인생 또 하나의 기회, 바리스타 인턴십

바리스타인턴십 2기 이수정

온라인으로만 바리스타 수업을 들었을 때는 참 아쉽다는 감정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머신도 만져보지 못하고 끝난다니' 하는 생각에 온라인 수업으로만 끝난다는 것도 분했고요. 그냥 화나고 아쉬웠지요. 기회만 있다면 다른 곳에서라도 당장 바리스타 수업을 듣고 싶은 심정이었던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바리스타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던 일의 시간을 조정하고 바로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면 일단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센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서 나에게 아주 간절한 기회였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들은 수업도 없을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두 번 수업을 들었지만 내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수업은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수업에서는 머신 사용법과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집에서만 만져봤던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이랑은 차원이 정말 다르구나 싶었어요.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카푸치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소한 행동들이 맛을 바꾼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된 목요일 수업. 그 날은 정말 여러모로 사고도 치고 힘들었지만 땀 흘리며 들을 만한 수업이었습니다. 아마 진행하시는 선생님의 노력이 더 묻어나서 그랬는지도 모르입니다. 카페 음료를 만들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전만 해도 이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는 수업은 없었는데, 이 수업만큼이나 현재의 나에게 기회를 준 건 없을 거라 장담합니다.



01
바리스타인턴십



꿈에 더욱 가까이 가게 도와준 바리스타인턴

바리스타인턴십 21기 허정훈

안녕하세요. 바리스타인턴십을 한 달 동안 참여한 허정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꿈은 저만의 가게를 갖는 것이었는데, 그 범위를 카페로 좁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리스타 학원을 알아보던 중, 학교 공문을 통해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지원하는 바리스타인턴십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바리스타 학원에선 지원해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체험 기회까지 마련해준다고 하니 주저할 것 없이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는 통과했지만 면접을 보고난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또 다른 기회로 다시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었고,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붙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음료 만들기 수업부터, 바리스타 필기 및 실기시험 수업, 라떼 아트 수업 전부 다 집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고 수업 능력도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코로나19가 심해져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특히 바리스타 수업의 경우 고재일 선생님 덕분에 온라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수업들은 다른 바리스타 학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지원금도 나오고 아르바이트까지 체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더 열심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십의 경우 바리스타인턴십, 쿠키인턴십, 목공인턴십, 놀이터인턴십 등 다양한 종류를 지원해주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부분들, 자신의 꿈과 관련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지원해주고 심지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재료, 학습비까지 전부 무료 제공해주고 일부 비용도 지원되니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인들에게도 자랑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오래오래 유지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정말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 좋은 기회가 생겨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니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저처럼 좋은 경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고 재미있었던 바리스타인턴십

바리스타인턴십 22기 오자현

처음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평소 바리스타에 관심이 있었고, 나중에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리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지원했다가 합격하게 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격이 내성적이기도 했고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성격 좋은 언니들과 친구들이 옆에서 같이 이끌어줘서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첫 주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지만,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2단계로 내려가 오프라인 수업으로 더 자세히

배우게 돼 좋았습니다. 처음 카페 음료 제조를 배울 때는 선생님이 전에 배웠던 것들이나 더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라떼 아트와 자격증 시험 대비 수업도 선생님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밝게 웃으며 재밌는 수업을 해주셔서 분위기도 좋고 재밌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포터필터를 끼우다 데여서 그런지 스팀이라거나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꾸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계속 직접 보여주시고 같이 해보고 자주 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해서 그런지 수업 진행도 빠르고 재밌었고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들 여기서 인연이 닿아 이제 막 친해지는 분위기였는데 코로나19 탓에 수업이 줄어 친해진 언니들을 더 많이 못 봐서 속상했습니다. 기간이 한 달이라 아쉬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01
바리스타인턴십



커피가 처음인 청소년에게도 쉽고 재밌는 인턴십

바리스타인턴십 22기 이재인

안녕하세요, 이번 바리스타인턴십 22기를 무사히 수료한 청소년입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적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커피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이걸 잘 마치고 취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게 과연 가능할까,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크게 총 네 가지의 교육을 받았어요. 카페 음료 제조, 자격증 준비 과정과 라떼아트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중 저에게 가장 재미있었던 건 라떼아트였어요. 우유로 거품 잘 내는 법에 대해 배웠고 라떼아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하트 그리기, 그리고 로제타(나뭇잎이 아래에서 둥그렇게 올라오는 모양) 그리는 법도 배웠어요. 어느 부분을 주의해야 예쁘고 깔끔하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도 1:1로 천천히 가르쳐주셨고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교육 받는 기간이 다소 짧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도 훌륭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매끄럽고 잘 이해되도록 수업을 해주셨어요. 초보여도 잘 따라할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사실상 왕초보였던 저도 에스프레소부터 달고나라떼, 흑당버블티라떼 그리고 우유 거품 내는 것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잘 익힌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센터 4층에 있는 카페에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제 카페에서 일을 해볼 수 있어서 특히 더 좋은 것 같네요. 좋은 인턴십 과정 진행해주셔서 감사해요!



01
바리스타인턴십



게으른 나를 움직이게 한 바리스타인턴십

바리스타인턴십 22기 조소현

저는 평소에 커피 만들기에 관심이 있었고, 카페 음료 만드는 것을 좋아해 집에서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관련 사이트를 통해 찾아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력자나 성인을 뽑아서 항상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바리스타인턴십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면접에 참여하여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커피머신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라떼아트,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을 한 달 동안 배웠는데, 그 기간이 정말 짧게 느껴질 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고, 다른 친구에게 참여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내 일상에 큰 도움이 된 바리스타인턴십

바리스타인턴십 22기 홍예슬

추 업포털사이트에서 바리스타인턴십 공고를 보고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면접에서는 탈락을 했지만 앞서 합격한 분의 개인사정으로 운 좋게 추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성폭력이나 안전교육 같은 기본 교육과 바리스타 교육이 같이 이뤄졌는데 난 이 부분이 참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위와 같은 기본 교육은 아예 진행하지 않거나 간단한 유인물만 배부하고 넘어가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리스타인턴십에서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며 의견도 묻는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을 진행해서 많은 내용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급여와 같이 나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고, 실제 배운 대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무임금으로 일찍 퇴근하길 요구하는 사장님께 이는 잘못된 것임을 알리고 그만둔 일도 있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이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기본 교육에 대한 후기를 뒤로 하고 바리스타 수업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정말 좋았습니다. 한 강사님이 아닌 여러 강사님들과 수업을 통해 많은 스킬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5분 준비과정이나 10분 시연과정을 시험장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재면서 실제처럼 교육받은 회차가 기억에 남는데 참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바리스타 수업 중 라떼아트 수업이 우유를 많이 사용하여 금전적으로 부담되는데 무료로 세세하게 강습 받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비록 예쁘게 만들진 못했지만 옆에서 격려해주시고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는 강사님 덕분에 그 마저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 만난 희망

바리스타인턴십 담당자 고재일

안녕하세요. 2020년 한 해 동안 바리스타인턴십 20기, 21기, 22기를 담당한 고재일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턴십도 변화무쌍했던 한 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고, 기존 3개월로 운영되었던 교육·실습 과정이 축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한 기수는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축적된 경험으로 얻게 된 값비싼 노하우로 더욱 많은 친구들에게 비교적 원활하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짧게 조정된 교육 일정만큼 친구들이 더욱 집중해서 바리스타 교육과 카페 실습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바리스타인턴십 친구들 그리고 드림센터 선생님들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변경되는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교육에 임해준 바리스타인턴십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갑작스러운 온라인 교육 전환에 맞춰서 양질의 교육을 준비해주신 바리스타 강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쉽사리 끝나지는 않겠지만 내년에는 더욱 나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는 바리스타인턴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임시완
정재석
최예빈
김수민
이준용
김문지
김근우
김석주
강사랑
강산



2020 드림센터 수기집

			02					
	쿠	키	인	턴	십			

김가원
김민선
송성희
권영선
김민서
박은주
배승민
손세빈
정다운
조미정





인턴십은 끝났지만, 새로운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

쿠키인턴십 12기 김주영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인턴십에 참여한 12기 김주영입니다. 저는 쿠키 말고도 다른 인턴십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새롭게 쿠키인턴십 활동을 하는 것이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서 남은 시간을 어디에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드림센터에서 청소년 인턴십을 매년 모집하면서 사람들과 인연도 생기고, 사회성도 기르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에 쿠키인턴십에 지원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은 기본 기술을 배워보고, 래시피를 응용하는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쿠키를 만들어서 나누자'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번 인턴십을 마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맞는 쿠키와 쿠키 제작 시 사용되는 주재료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래시피를 응용하여 채식주의자, 유당불내증, 건강을 신경 쓰시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쿠키를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 커리큘럼상 제가 만들 수 있는 메뉴는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개발해보며 나누고 싶습니다. 인턴십은 끝났지만, 새로운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 시켜준 쿠키인턴십

쿠키인턴십 12기 최예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쿠키인턴십에 참여했던 12기 최예빈입니다. 제가 인턴십을 참여하게 된 동기는 아빠의 권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아빠의 권유뿐만 아니라 제가 알아본 결과 다양한 활동들도 있어서 재미있겠다는 생각과 다른 것에도 도전을 해보자는 의미,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활동할 수 있음에 의의를 두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여러 개인데요, 꼭 활동할 때뿐만 아닌 오는 길 가는 길에도 에피소드가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먼저 어제 했던 마카롱 만들기 생각이 납니다. 마카롱의 경우 면접을 보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활동이었는데, 어제 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카롱을 만들면서 머랭을 칠 때 팔이 너무 아파서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색소를 넣어 맛있게 반죽이 활기를 찾고, 다양한 모양으로 마카롱을 만들어서,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기뻐했습니다. 원래는 조개 모양이었지만 많이 서툴러서 강아지 발 모양이 나온 것도 나중에는 재밌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이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었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기억에 남는 때가 있는데요. 그 때는 활동도 활동이었지만 집에 가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비가 하루 종일 와서 신발과 옷이 다 젖어서 약간 찝찝했지만 쿠키를 들고 가는 즐거운 마음이 합쳐져서 약간은 오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일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기본소양교육 중 하나였던 금융교육과 초코칩쿠키 만들기 활동이었습니다. 금융교육의 경우, 요즘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많이 접했는데 이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안 당하기 위한 예방법들을 배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본기술교육 중에는 초코칩쿠키 만들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 활동의 경우 생각보다 쉬워서 집에서도 오븐만 있으면 가능하기에 제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선물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인맥 형성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기본소양교육 중에서도 소통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었는데, 윗사람에게는 수고하셨다는 말이 “더 일하세요”라는 말과 같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과 관련된 교육도 저에게 다양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크게 없었고, 아쉬운 점이라면 여쭙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온프라인 수업 때보다 소리, 화면 등의 문제로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스스로에게도 아쉬웠습니다.

내가 직접 번 돈으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작지만 소중한 기쁨, 행복이었습니다. 특히 친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다 보니 필요한 물건들이 많은데, 그걸 제가 챙겨주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의욕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싱쿠키





협동심이 필요한 쿠키인턴십을 하며 변화된 나의 모습

쿠키인턴십 12기 김수민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22살 김수민입니다. 드림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쿠키인턴십에서 만든 제과들을 판매하다가 제과제빵에 관심이 생겨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친구가 오븐에서 저의 마들렌을 꺼내주려다가 떨어뜨린 일이 기억에 납니다. 친구는 좋은 마음으로 대신 꺼내 주려고 한 것이기에 자칫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인턴십 교육은 경제 교육과 서비스마인드 교육이었습니다. 경제 교육에서는 신용관리법과 재산관리법 및 잘 소비하는 법이 유익했고 서비스마인드 교육에서는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할 때의 태도 및 불만고객 상대하는 법 등이 기억에 납니다.

이번 쿠키인턴십을 하면서 좋았던 것은 직접 실습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중간 중간 봐주시면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고, 힘들었던 것은 코로나19 탓에 중간에 일정이 바뀌어 재료 소진을 위해 똑같은 메뉴를 여러 번 만들어야 했던 점입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에는 나의 이익, 나의 것만이 중요했는데 협동심이 필요한 쿠키인턴십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황 및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변화된 저의 모습이 인턴십을 하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아직 사회로 나가기 전 미성숙한 부분들을 미리 경험해보면서 조금씩 준비해가는 학교입니다. 또 저에게 쿠키인턴십이란 앞으로 제과 래시피만 보다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앞으로 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될 텐데 잘 적응하고 주어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드림센터는 희망의 공간, 쿠키인턴십은 또 다른 도전

쿠키인턴십 12기 이준용



저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쿠키인턴십을 하고 있는 24살 이준용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인턴십 활동을 많이 못했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쿠키인턴십을 할 때 가장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는 '말차마들렌 교육'이었습니다. 말차마들렌을 만들 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실수로 설탕과 소금을 먼저 넣지 않고 달걀을 먼저 넣어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 덕분에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 갔습니다. 마무리 과정에서 오븐에서 나온 마들렌 맛이 이상할까봐 조마조마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알고 있는 마들렌 맛이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은 모두 '머랭 만들기'였습니다. 머랭을 만들면서 이게 바로 '쿠키의 세계'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잊지 못할 활동이었고, 기본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쿠키 가운데에는 아이싱 쿠키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쿠키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싱 쿠키를 만드는 것이 쉬워 상대적으로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준비해주신 다양한 초코펜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도 해보고, 칭찬도 받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희망의 공간'이고 쿠키인턴십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주는 장소이자, 저의 꿈을 도와준 곳

쿠키인턴십 12기 김문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의 반 이상을 생활비로 내고 나머지 학원비로 모으며 바쁘게 살던 저는 다른 일을 해볼까? 생각하면서 우연히 쿠키인턴십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생활비랑 학원비를 빼는 만큼 제가 쓸 수 있던 돈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처럼 기술도 배우게 해주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도 문제가 없는 데는 드물었습니다. 제과 기술은 기술대로 배우고, 받은 돈으로 제 개인 용돈을 챙길 수 있겠다 생각해 인턴십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쿠키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역시나 쿠키 실습이었습니다. 제과제빵에 꿈을 가지고 있던 저는 이 실습이 무엇보다 좋았으며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쿠키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 기술과 이론적 부분을 같이 배워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마카롱을 만들 때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팔힘으로만 머랭을 만든 것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저에겐 좋은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

들 함께 서로 협동해나가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 아르바이트만 하는 다소 피폐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니면서 친구들과 지내며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저의 배움을 채울 수 있으면서 지식을 주는 장소였으며, 쿠키인턴십은 저의 꿈을 도와준 곳이었습니다. 만약 쿠키 인턴십 이외에 다른 인턴십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바리스타인턴십에 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커서 제과 카페를 열고 싶기에 바리스타인턴십은 분명 저에게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함께해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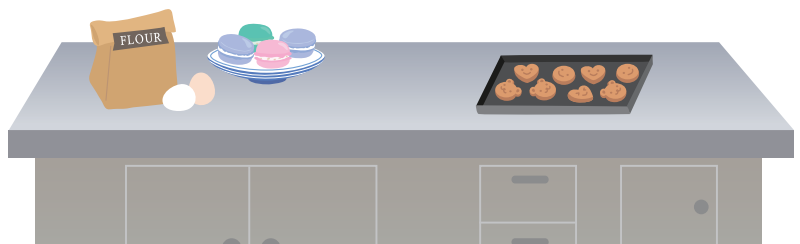
인턴십 재미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봐

쿠키인턴십 12기 김근우

제 이름은 김근우이고 참여했던 인턴십은 쿠키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을 하게 된 이유는 전에 했던 쿠키인턴십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턴십을 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마카롱을 만들 때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인턴십 교육은 화법을 배울 때였습니다. 일하면서 좋았던 점은 쿠키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였고, 만드는 과정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힘들었던 점은 휘핑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팔이 너무 아프다는 거였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저에게 아주 큰 삶의 의미였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으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 제 모습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는데 인턴십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일하다 보니 세상은 같이 살아야 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활동한 형, 누나,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드림센터란 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준 곳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저에게 쿠키인턴십이란 너무 재미있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드림센터를 이용할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인턴십 재미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봐”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쿠키인턴십을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주 보람 있고 직접 만든 맛있는 쿠키를 먹을 수 있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코로나야
빨리 끝나라

쿠키인턴십 12기 김석주

조미정 선생님의 권유로 쿠키인턴십을 하게 된 김석주입니다. 쉬폰을 많이 만들고 싶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한 번밖에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생각보다 마카롱이 별로라 실망했었습니다. 마카롱이 날씨에 민감하여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쿠키인턴십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전동휘핑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해야 돼서 너무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동휘핑기보다 직접 하는 것이 힘이 들었지만, 제 체력 또한 그만큼 올라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쿠키인턴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휴관이 되었다 풀리기도 하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파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올해 하반기가 마지막 기회만큼 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코로나19 문제가 잘 해결되어,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오픈마켓이 정상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진로를 찾고자
시작하게 된
쿠키인턴십

쿠키인턴십 13기 강산



하던 공부가 아니었기에 많이 귀찮기도 했지만 이론적으로 알아나간다는 것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쿠키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 처음 돈을 벌었다는 점도 뜻 깊었습니다. 앞으로 인턴십 활동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번쯤은 꼭 용기를 내어 참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혹시 모를 진로에 도움도 될 것 같으니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
도전하세요!

쿠키인턴십 13기 강사랑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1학년에 재학 중인 강사랑입니다. 저는 평소 가정에서 용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밥값 정도는 주시지만 밥값만으로는 제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을 수도 없으니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성인도 잘 구해지지 않는 일자리를 청소년이 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던 차에 친구가 저에게 인턴십 활동이 있다고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저는 평소에 베이킹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베이킹 쪽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턴십 중에 쿠키인턴십이다! 해서 바로 쿠키인턴십을 신청하였습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활동비도 지급받을 수 있어 정말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떨렸지만 바로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도 통과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활동을 했는데 온라인 활동과 제과 필기, 실기를 병행하였습니다. 키트를 매번 보내주셔서 집에서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타르트 만들기였습니다. 여태 만들었던 것 중 가장 제 맘에 들었고 가장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따로 재료를 사서 다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나 스스로 무언가 하며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언가를 사주실 때마다 죄송했었는데 나 스스로 번 돈을 쓰는 것이니 그런 마음도 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 제 모습은 매일 늦잠만 잤었는데 인턴십을 하고 난 뒤에는 늦잠을 많이 자지 않아서 조금 부지런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이 활동을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 스스로 돈을 번다는 뿌듯함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해서 더욱 즐거운 활동인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2 쿠키인턴십



나의 꿈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해줄 수 있는 곳

쿠키인턴십 13기 김가원

안녕하세요. 쿠키인턴십에 지원했던 김가원입니다. 학교를 다니게 되어 헬스장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에 뭔가 다른 아르바이트로 경험을 쌓고 싶고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학교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쿠키인턴십에 대해 알게 되어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때문에 집으로 보내주신 재료들로 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것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 케이크 만들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 아르바이트라든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꿈 중 마카롱집 사장님이라는 꿈을 생각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기초들을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코로나19로 탓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좋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무언가를 겪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다 월급을 받고 나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구나 하는 기분에 뿌듯해지곤 합니다. 쿠키인턴십을 하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제과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쿠키인턴십 활동 덕분에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나에게 쿠키인턴십이란 나의 꿈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해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드림센터에 오셔서 좋은 지식, 기술 배워가길 바랍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지식과 경험, 기술은 더욱더 소중한 거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창업을 꿈꾸시는 청소년분들께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2 쿠키인턴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쿠키인턴십 13기 임시완

안녕하십니까. 저는 쿠키인턴십 13기 임시완입니다. 제가 인턴십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인턴십 활동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돈도 벌어서 가족들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턴십을 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하게 되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께서 집에서 실습할 수 있게 키트를 보내주셨고 거기엔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십 실습을 하면서 유튜브로 필기시험에 대비해 공부를 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에는 취업준비에 대해 미래의 불안감도 있고 막막했는데 인턴십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괜찮아졌습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가 조금씩 생기는 듯했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정말 보람 있는 인턴십을 만나게 해준 역할을 한 곳입니다. 앞으로 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잘 가르쳐주셔서 한번 와서 이용하는 것을 추천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와봐

쿠키인턴십 13기 김근우

저는 17살 김근우이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쿠키인턴십입니다. 지난번 12기 쿠키인턴십에 이어서 심화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인턴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용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턴십을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아이싱 수제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었고, 제가 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제과기능사 필기와 같이 자격증 따는 것을 해본다는 것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자 좋은 기회였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쿠키를 만들 때, 휘핑을 통해 머랭을 올리거나, 반죽을 잘 섞어야 해서 팔과 손을 자주 써야했기 때문에 너무 아팠다는 점입니다.

즐겁게 쿠키를 만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돈이 주는 즐거움과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 제 모습은 친구도 별로 없고, 쉽게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턴십을 하고 나서부터는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또한 함께 했던 형, 누나, 친구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가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즐겁고 재밌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쿠키인턴십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긴 하지만 끝까지 일한 보람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드림센터를 이용할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재미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와봐”입니다. 덧붙여, 쿠키인턴십을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니 모두 오세요!



나에겐 또 다른 학교이며 배움터인 이곳

쿠키인턴십 13기 김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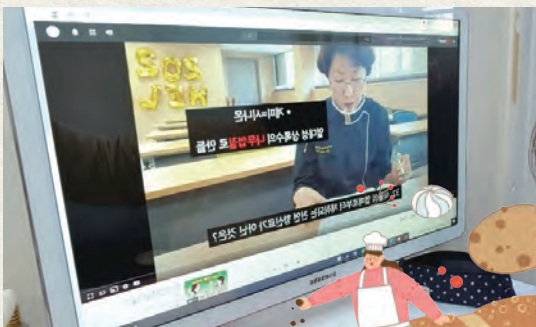
고등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과를 배우려 했지만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고 해서 우연히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온 홍보물을 보고 쿠키인턴십에 다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번 기수에도 참여했고 이번에도 참여하는 이유는 제과 필기와 실기를 배울 수 있는 심화과정인 개설했기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길 안 다니면 야간엔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오후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일상의 무한 반복이었기에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와주기에 자격증을 따야 했던 저는 여기를 다니면서 보내주신 문제집과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증 시험 보는 것처럼 실습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구나 하고 알 수 있어 좋았으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기를 다니면서 오후에 잠만 자지 않고 새로운 지식으로 유익한 시간을 메꿀 수 있어 기뻐하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또 다른 학교이며 배움터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같이 하는 쿠키인턴십 친구들과 좀 더 사이좋게 지내며 다니고 싶습니다.



나에게 드림센터는 ‘친구’ 그 자체

쿠키인턴십 13기 김민선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인턴십 22살 김민선입니다. 제가 쿠키인턴십에 지원한 계기는 자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쿠키인턴십을 했을 때,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사용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배려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고, 초콜릿 중탕이나, 꾸미는 종류 등 다양한 재료를 섬세하게 챙겨주셔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웠던 점은 “아, 나도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쿠키인턴십을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교육은 mbti 검사입니다. mbti 검사를 통해 성격 등 서로를 아는 시간이라서 멋진 교육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쿠키인턴십은 비대면 택배와 동영상(youtube) 시청 교육이라서, 제과 실기를 못해 본 점이 아쉬웠습니다. 좋았던 점은 제과 시험에 대한 세세한 정보와 (동영상과 만들기를 통해) 기술을 습득해 “아, 나도 잘 할 수 있겠구나!”하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서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고, 함께 벌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 저는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못했습니다. 미정 선생님께 칭찬받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위생이나 청결에 대해 더욱 신경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 역시 다시 말하지만, 위생관리 및 청결에 대해 더욱더 신경 쓰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청소년드림센터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준 친구이자 아르바이트를 도와준 “친구” 그 자체입니다. 나에게 쿠키인턴십란 기술과 자립을 도와주는 인턴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와 동생, 언니, 오빠들에게 겁을 내시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턴십을 통해 아르바이트(인턴십)을 하면서 나도 벌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얻을 수 있고 기술 습득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넓힐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쿠키인턴십

쿠키인턴십 13기 김주영



저는 이번 쿠키인턴십에 참여한 13기 김주영입니다. 지난 12기에 이어서 제과 기능사 필기 및 실기를 배울 수 있다고 하여 심화과정으로 생각하고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턴십은 발대식부터 수료식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키트를 활용해 만들어볼 수 있었고, 제과기능사 필기 시험에 맞춘 문제 풀이, 실기 과정에서 나오는 레시피, 실제 시험에서 활용되는 정보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을 뿐더러 만든 메뉴를 직접 먹어보고, 실제 작업장에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인턴십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어 다른 청소년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꿈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직진해보 그것이 곧 자신의 미래이자 꿈일 테니

쿠키인턴십 13기 송성희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송성희이고, 올해 쿠키인턴십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쿠키인턴십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학교 포스터에 제 관심사였던 요리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띄어 지원을 하고 면접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할 때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제가 만든 것을 직접 먹어보고 사진으로 남기게 된 것들입니다.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성실함의 발견인 것 같습니다. 쿠키인턴십에 꾸준히 참여한다는 것에서 저의 성실함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키인턴십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어디서나 파는 것을 사서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다 만들고 치우는 것이 조금 힘들었을 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참 보람차고 좋은 일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드는 뿌듯함이 절실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쿠키인턴십을 하기 전 늦잠을 자던 제가 인턴십을 하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게 된 것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의미를 지닌 곳, 나에게 쿠키인턴십이란 여기서밖에 못하는 좋은 추억을 쌓는 그런 곳이라 생각하고 싶어요. 앞으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꿈에 대해 한 발짝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꿈에 관한 것은 뭐든지 직진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곧 그게 자신의 미래이자 꿈일 테니까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

쿠키인턴십 14기 권영선

안녕하세요. 쿠키인턴십 14기 권영선입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자신감이 없던 제가 자신감이 생기고 빵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빵 관련 직업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쿠키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옆에서 같이 도와주었던 선생님들 덕분에 더욱 재밌게 끝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처음 브라우니 만들면서 화상도 입었지만 동시에 그 경험으로 제빵, 제과 만드는 직업들이 힘든 직업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전할 친구들에게는 모두 추천합니다

쿠키인턴십 14기 김문지



13기에 이어서 14기 제과자격증반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13기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키트, 유튜브 비대면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14기의 경우 휴관이 풀려서 센터에 나와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기에 영상들과 키트 활동들을 해보면서 한 번 해봤던 것들이 있었기에 제과 필기와 실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도 되었습니다. 필기를 공부하면서 게으름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실기를 반복해 준비하면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계량시간과 계량량 새로운 재료 이름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들렌의 경우도 새롭게 제과 품목으로 만들어봄으로써 색달랐습니다. 필기는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서 이론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진행되어 너무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과제빵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쿠키인턴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기를 얻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길

쿠키인턴십 14기 김민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 자퇴생 김민서입니다. 저는 드림센터 쿠키인턴십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 인턴십을 시작한 계기는, 집에서 취미로 만들어보았던 여러 제과와 빵류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네이버 블로그를 보며 만드는 제과와 제빵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인턴십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필기 시험 공부를 하며 제과, 제빵의 기본기와 이론들을 접할 수 있었고, 생애 처음으로 자격증 시험을 제 손으로 직접 신청해보았고 또한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손으로 무언가를 완성하고, 독학을 통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의 즐거움과 뿌듯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제 주변 대다수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그렇듯이, 항상 혼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한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필요한 것들도 많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 인턴십을 통해 저는 관심 분야였던 제과 제빵과목의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에



필요한 교육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무언가를 완성하며 과정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이 보이기에 저는 혼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활동금은 우리가 단순히 제과, 제빵 체험을 하기보다는 정말 나중에 사회에 나가 이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복돋아주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활동에서 얻는 수익이 더 가치 있게 생각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청소년의 자립에 도움이 되는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독학으로는 버거운 활동까지 제공하여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이 활동을 통해 많은 위기 청소년들과 세상과 혼자 마주해야 할 아이들이 용기를 얻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과에 대한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도움이 된다

쿠키인턴십 14기 박은주

저는 쿠키인턴십에 참여한 14기 박은주입니다. 저는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인턴십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 생활을 하면서 많은 쿠키와 빵을 만나보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두 번째 실습 때 만든 케이크였습니다. 모양도 마음에 들었고 맛도 좋아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에게는 제과에 대한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면서 경험도 쌓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다만, 만드는 데 약간의 힘이 들었습니다. 체력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에는 게으른 편이었는데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규칙성 있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쿠키인턴십에는 좋은 조미정 선생님과 이가영 강사님이 강점이고 그 곳에서 좋은 친구도 만들 수 있고 맛있는 과자도 만들 수 있었으니 적극 추천합니다!



스스로 부딪힘을 느끼며 나아가는 곳

쿠키인턴십 14기 정다운

안녕하세요. 쿠키인턴십 14기 정다운입니다. 코로나19로 때문에 온라인수업을 하거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제과 및 쿠키 관련 키트로 집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직접 센터에 와서 제과기능사 자격증 실기품목 실습을 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어려움도 많고 힘도 많이 들었지만 스스로 반죽을 하고 틀을 짜고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도 구워보면서 스스로가 부딪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된 영상도 보내주셔서 복습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몇 그래프 정도 나오겠다는 것(계량하는 법, 시험 팁 등)을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쿠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쿠키인턴십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 내 자신이 대견해졌다

쿠키인턴십 14기 배승민

안녕하세요. 쿠키인턴십에 참여했던 배승민입니다. 저는 작년 8월에 학교를 그만두고 제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에게 인턴십 활동을 소개 받았고 그중 제과가 어릴 때부터 관심을 보였던 제과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원하였는데 벌써 활동한 지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드림센터에 가서 키트활동을 한 것부터 마지막 날 마카롱 만들기까지 점점 어려워지는 활동이었지만 점점 반죽하는 실력이 늘고 알게 되는 것이 많아질수록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인턴십 활동을 하기 전, 저는 정말 게으른 일상을 보냈었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센터에 출석하고 필기과제를 하는 등의 활동으로 잠깐이나마 활발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열심히 한 제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저에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제 진로 선택에 한발 더 나아가게 도와준 유익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사람을 대하기 어려웠하고 낮을 잘 가리는 편인데 선생님들 모두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인턴십을 체험할 분들 모두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저와 같이 활동해주신 쿠키인턴십 멤버들과 조미정 선생님과 이가영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알려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주는 곳

쿠키인턴십 14기 손세빈

저는 쿠키인턴십에서 활동했던 손세빈입니다. 평소에도 쿠키에 관심이 많았고 스스로 책임감을 기르고자 쿠키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 쿠키인턴십을 시작했을 땐 모든 것이 막막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생님의 친절한 가르침에 열정이 불타올라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쿠키인턴십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해 정성스럽게 만든 쿠키를 보면 뿌듯함도 느꼈고 저 또한 다른 인턴십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꿈이 하나씩 생기고 새롭고 기억에 남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봐서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쿠키인턴십을 하면서 모양이 예쁘게 나올 때도 있고 안 예쁘게 만들 때도 있지만 내가 만들었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이젠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드림센터는 참 좋은 곳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알려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 해주는 곳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진로 고민이 많은 저희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찾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쿠키인턴십 조미정 선생님, 감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쿠키인턴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든 결국에는 해낼 것

쿠키인턴십 담당자 조미정

- 쿠키** 쿠키인턴십의 빛나는 청소년 여러분! (근우, 재석, 주영, 문지, 시완, 수민, 예빈, 준용, 석주, 산, 가원, 사랑, 성희, 민선, 은주, 다운, 세빈, 영선, 승민, 민서) 쿠키쿠키쿠? 남남쿠키? 안녕하세요. 미정쌤이에요!
- 키** 키워왔던 여러분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셔서, 꿈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쌤은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치 쿠키가 알맞은 온도에 잘 구워지기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쌤은 차분히 지켜볼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든 결국에는 해낼 것입니다.
- 인** “인생이 힘드네요” 하면서 선생님을 꺾려보며 휘핑기를 열심히 돌리며 머랭을 올리는 여러분들이 떠오르네요. 쌤이 우리 친구들에게 인생에 대해 감히 뭐라 말해줄 수 없지만 약간 더 산 누나, 언니로서 말해준다면 (레알 약간) 쌤도 휘핑기 돌릴 때 인생 먹고 살기 힘들다 생각한답니다. 그러니 항상 그랬듯이 쿠키가 완성되어 포장과 정까지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함께 완성하고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 턴** 턴(turn)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앞으로 마냥 행복하지도, 슬프지도,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고, 경험하며 나아가겠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힘을 키우세요. 힘들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셔도 됩니다. 이미 협동심과 인내심, 책임감, 배려심이 필요한 쿠키인턴십을 수료한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 심** 심초, 심분, 일초, 일분 차이로도 제과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고 설정해서 쿠키와 빵의 굵기와 익힘색을 보고 조절하며 오븐에서 꺼내던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꿈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고 그런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나 길을 잃을 때, 무언가 하고는 싶은데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언제든 편하게 미정쌤을 찾아주세요. 쌤도 여러분의 그 질문과 길에 함께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남쿠키.

2020 드림센터 수기집

			03		
	목	공	인	턴	십

송은주
강건우
권예원
윤소연
이지원
김재윤





드림센터는 좋은 기억만 남아 있는 곳

목공인턴십 3기 송은주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힘들 때였습니다. 우연히 남친이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목공인턴십 상반기 모집을 한다고 저에게 해볼 생각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드니 차라리 목공인턴십으로 여러 작품을 만들면서 돈도 벌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할 때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작품을 만들 때, 강사님께서 사소한 것도 꼼꼼히 알려주시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강사님 덕분에 작품도 늦어지지 않고 무사히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그다지 없었고 많은 지식을 알게 돼서 도움이 됐습니다. 목공아르바이트를 하며 책임감과 독립심이 더 강해져 돈 버는 재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인턴십에 참여해 여러 작품을 만들면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성실히 참여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다른 일을 해도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인턴십으로 많은 도움이 된 곳이고 또 재능도 발견할 수 있었고 작품을 만들며 용돈도 벌게 해준 좋은 추억만 남아 있는 곳입니다. 3년 전에 했던 목공인턴십을 서울에 와서 또 좋은 강사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전에는 만들어 보지 않았던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좋았고, 힘들게 만든 작품을 숙소 선생님, 이모님들에게 선물로 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드림센터를 이용하면서 사회에 나가기 전 쿠키, 바리스타, 목공 등을 경험해보면서 내게 어떤 재능 또는 손재주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더욱 높아지고 성취감, 뿌듯함 등 기쁜 마음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성실히 열심히 하는 자세가 갖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공인턴십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목공인턴십 4기 강건우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공인턴십은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아버지께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목공은 배워둘만 하다고 말씀하셔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 방문해서 처음으로 수업을 받을 때입니다. 이미 좀 수업을 통해 얼굴은 뵈었지만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활동이 도움이 되었지만 그중에서 목공에서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톱질을 배울 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

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집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목재를 사용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오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컸습니다. 만든 시간만큼은 다른 잡생각들이 들지 않고 그것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힘든 점은 생각보다 집이랑 멀어서 힘들었습니다. 전에는 코로나19로 때문에 집에 오래 머물며 예전보다 나태해졌는데, 목공인턴십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며 그날마다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해준 점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이란 그동안 할 일 없던 저에게 기회를 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공인턴십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곳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턴십을 찾는 분들께 선택을 잘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공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 좋은 경험

목공인턴십 4기 권예원

고, 제 적성かと 잘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언젠가 목공도 직업으로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통해 실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들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존감, 금융, 자소서 작성법, 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들었는데, 그중 자소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력이 없는 상태로 아르바이트 자소서 쓰기가 막막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강의들도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좋았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돈을 받지만, 사실 저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보면 적 없습니다. 목공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네, 돈까지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교육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르바이트란 지금으로서는 용돈을 벌기 위한 일, 내년 부터는 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인턴십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공간입니다. 저에게 목공 인턴십이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고, 목공의 즐거움을 알려준 좋은 경험입니다. 앞으로 드림센터를 방문하고,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도 편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즐기다보면,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목공 인턴십에 참여한 권예원입니다. 올해 입시 공부를 그만 두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양한 체험들도 하지 못해 심심했던 찰나, 목공인턴십 관련 게시물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목공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공인턴십 초반에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어 약간 불편하고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센터에 나와서 수업한 이후로는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 다뤄보는 다양한 도구들로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이 재미있었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수업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더 즐겁게 목공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공을 배우면서 나무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정성을 들일수록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목공인턴십을 하면서 처음 나무를 다뤄봤는데, 힘들기는 하지만 정말 재미있

또 하고 싶은 목공인턴십의 추억

목공인턴십 4기 송은주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고 참여했던 곳은 목공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을 시작한 계기는 첫 번째 상반기에는 남자친구 소개를 통해서 하게 되었고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모집은 쉼터 선생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며 기억에 남는 것은 위험한 기계를 선생님 도움 없이 스스로 잘 사용하며 작품을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직소로 도마작품을 자를 때는 무서웠지만 직접 해보고 성공했을 때는 스스로 뿌듯해졌고 도전하는 힘도 한 단계 더 성장해서 더욱 자신감도 커진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도움이 된 교육은 근로기준법과 성교육이었습니다. 성교육, 근로기준법은 특히 성인, 청소년 가릴 것 없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받았을 때는 행복함을 느꼈고 도전정신도 많이 커진 것을 느꼈습니다. 위험한 기계 작품을 만들 때에는 힘을 많이 소모해야 했고 사포질 역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르바이트 하며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는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십 하기 전에는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지만, 인턴십 후에는 스스로 벌어서 돈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절약성 소비를 더욱 더 키우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립심이 많이 강해졌고 돈에 대한 소중함, 절약성 소비가 얼마나 중요하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소중한 추억뿐 아니라 돈에 대한 소중함, 절약성 소비의 중요함을 일깨워주었고 일을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하자라는 다짐과 책임감도 함께 배울 수 있었던 곳입니다. 앞으로 드림센터를 다니게 될 친구들! 무섭고 할지말지 고민되고 하기 귀찮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떨쳐내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상반기, 하반기도 모두 해본 목공인턴십 참여자가 추천한다. 너희들도 하다보면 숨은 능력, 창의력뿐 아니라 많은 아이디어도 생길 거라 생각한다. 미래에 나에게 어떤 직업이 어울릴지 진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목공이라는 좋은 경험에 감사하며

목공인턴십 4기 윤소연

목공인턴십 4기 윤소연입니다. 나태한 나의 모습을 탈피하고자 시작한 목공인턴십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인턴십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신청하게 된 계기는 목공 그 자체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향을 맡고 손으로 느끼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든다는 뿌듯함이 생각보다 크고 스스로 선택한 것을 해내는 일은 보람찼습니다.

하반기 수업은 상반기 수업과 다른 선생님께서 진행하셨는데 선생님께서 기계를 다뤄주시고 지켜봐준 상반기와 달리 직접 스스로 해봄으로써 다른 경험을 겪었던 거 같습니다. 스스로 실패하고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다시 시도할 때는 실패했을 때를 기억해 더 나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고 예쁜 작품을 만드는 것도 좋았지만 스스로 기계를 다뤄보고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한지, 그리고 더 잘 다뤄 나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습니다. 실수를 하고 흠집이 날 때는 참 아쉬워 수업이 끝난 후에도 신경이 쓰였지만, 그 미련을 털고 다음에 더 잘 다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한 시간도 참 유익했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를 목공인턴십으로 접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프로그램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지원받거나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서 막막한 상황을 해결해준 열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기대감을 갖게 해준 목공인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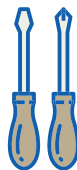
목공인턴십 4기 이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목공인턴십에 참여했던 16살 이지원입니다. 제가 인턴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엔 선생님의 추천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다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거울 프레임 만들기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 건물 앞 계단에서 건우오빠와 예원언니와 같이 사진을 찍었던 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목공 기술과 도구, 기계들을 알아가고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도구들이나 가구들을 제작하면서 여러 언니 오빠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가끔 너무 무리해서 팔이 자주 아프고 저리긴 했지만 대부분 항상 정말 좋은 기억뿐이었습니다.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제 모습은 그냥 항상 뒹굴기만 하고 할 것 없이 맨날 누워서 우울하게 지내는 게 일상이었지만, 인턴십을 시작하고 화, 수, 목 항상 부지런히 꾸미게 되었고, 오늘은 뭘 만들지와 선생님들과 언니 오빠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항상 그 날들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쌓아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게 해준 소중한 공간이고, 목공인턴십은 저에게 즐거움과 기대감, 웃을 수 있는 재밌는 날들을 만들어준 정말 뜻 깊은 추억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드림센터를 이용할 예정이고,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고민하지 말고 한번쯤은 해봐도 후회하지 않을 경험이라고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또 신청하고 싶어요!





03 목공인턴십



목공이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만난 친구들

목공인턴십 담당자 김재윤

안녕? 목공인턴십 친구들! 너희들과 함께 보내온 2020년이 벌써 끝나가고 있는 지금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 2020년은 코로나 19 탓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열심히 해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고마워. 우리 목공친구들도 처음해보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사이에서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도 열심히 참여해준 모두가 짬은 너무 고맙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어색하고 어려워했던 순간이 기억나니? 그럼에도 구 강사님, 오 강사님이랑 너희들이 함께 목공이란 하나의 공통점으로 노력했던 순간들이 기억이 많이 나. 나무 하나 하나 소중함을 배우고 나무의 특성과 목공공구 및 기계들을 처음 만지면서 호기심 많아보였던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 그리고 너희들의 노력이 목공지도사 3급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게 되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해.

너희들이 배웠던 여러 소양교육 그리고 목공강사님이랑 배웠던 모든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경험이길 바란다. 배움을 가졌던 시간들이 어려웠고 힘들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2020년 코로나 19상황에서도 짬과 강사님들을 믿고 잘 따라와준 우리 목공인턴십 친구들 언제나 건강하고 항상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란다.







2020 드림센터 수기집

			04				
	놀	이	터	인	턴	십	

김민선
정하은
정다운
유은주
김시은
이유빈
김재욱
정서윤
박채운
정지원
배민경
양현진
허선영





인턴십은 나의 생활습관

상반기

놀이터인턴십 김민선

안녕하세요. 놀이터인턴십 김민선입니다. 제가 놀이터 인턴십을 지원한 계기는 인턴십을 하면서 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해주었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이 좋아서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놀이터인턴십이 짧게 진행되었지만 저의 인사성으로 선생님과 라포 형성도 되고, 선생님들이 잘 웃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교육은 서비스 심화교육이었습니다. 서비스 심화교육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이터에 있는 PC, 포켓포실, 농구대, 에어하키, 노래방, 오락기, 핸드서커, 두더지게임, 충전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저는 이용하시는 분들을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만큼 저 또한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힘든 점은 소독 및 청소였는데, 손이 하나하나 닿는 곳을 소독할 때는 힘들었지만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독 및 청소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본래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저였는데 인턴십을 하면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 안 치우는 사람이었는데 인턴십을 하고 나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치웠습니다. 저에게 인턴십이란 생활습관입니다. 스스로 해쳐나가고 스스로 싫은 일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드림센터를 이용하면서 힘든 일도 선생님 또는 인턴십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해쳐나가면서 즐겁게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배우며 배우는 사람이 되기

상반기, 하반기 1기

놀이터인턴십 정하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하은이라고 합니다. 소속은 놀이터인턴십이고 인턴십을 시작한 계기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서비스 수업을 들었을 때 '발연기' 했던 것이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경제수업입니다. 힘들었던 점은 '흑역사'가 생성되었던 점입니다. 알바를 하게 되어 돈을 벌게 되면 조금씩 모아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지 변한 것은 없을지라도 열심히 천천히 고쳐가며,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인턴십이란 부족한 것을 배우며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아이시떼루"입니다!



04
놀이터인턴십



두려움을 벗어나 도전하다

상반기, 하반기 1기

놀이터인턴십 정다윤

인턴십을 하기 전의 내 모습은 동갑 친구들을 많이 두
려워했다. 아니 싫어하고 피하고 혐오하는 편이었
다. 하지만 인턴십을 하면서 동갑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많이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나 쿠키, 바리스타, 목공을 도전해보
며 자신의 적성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듯이 두려워하
는 것보단 도전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04
놀이터인턴십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출발점

하반기 1기

놀이터인턴십 유은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이고 놀이터인턴십에 참여한 유
은주입니다. 인턴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스스로 돈을 벌
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며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습니다만, 몰랐
던 사소한 부분도 하나하나 알려주셨던 성교육 수업이 좋았습니
다.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교육들을 받아서 좋았지만 화상이
다 보니 소통이 좀 힘들었습니다. 인턴십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 저는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좀 무섭고 힘
들었는데 인턴십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이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드림센터는 청소년을 도와주는 곳이며 저에게 놀이터인턴십이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본인
에게 경제적 자립이나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다면 드
림센터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4
놀이터인턴십

나를 변화시킨
인턴십

하반기 1, 2기

놀이터인턴십 김시은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김시은입니다. 저는 지금 2년째 놀이터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노래방을 이용하려고 올라왔다가, 담당 선생님께서 상시로 일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제안 덕분에 상시로 시작한 것이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인턴십 수업을 들으면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 그 친구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즐거웠고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수업이 제가 일할 때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습니다. 이번 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센터에 나와 인턴십 수업을 들으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수업을 듣고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돈을 가볍게 생각하고 흥청망청 쓰던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돈의 무게를 알게 되었고, 저축도 시작하는 등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의 저는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몸을 자주 움직이고 청소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림센터를 4층에 있는 대안학교를 통해 알고 다니기 시작한 거라, 저에게는 센터보다 학교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이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나 부탁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드림센터를 다닌 지 4~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렵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냥 편하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04
놀이터인턴십

하루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게 해준 시간

하반기 1, 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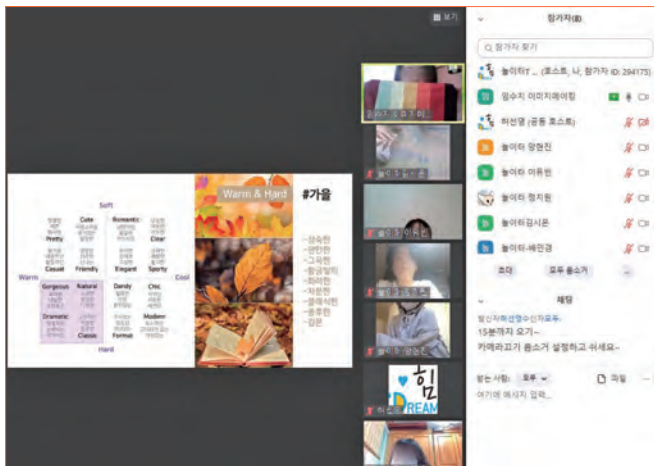
놀이터인턴십 이유빈

저는 이유빈, 19세이고 놀이터인턴십에 참여했습니다. 시작한 동기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자존감 수업에서 사람들이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적었던 것과 마지막 정기회의 때 한 마크라메 키트입니다. 살면서 만들기를 잘 하지 않았는데 생전 처음으로 잘한 거 같은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은 퍼스널컬러였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직업이 메이크업아티스트인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컬러를 많이 알아야 해서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움이 되었던 건 취업교육과 성교육이었습니다. 앞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교육을 다양하게 듣고 오프라인으로 바뀐 점이었고 힘들었던 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저에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인턴십)를 하기 전에는 매일 빈둥대며 불안감이 굉장히 심했는데 시작하고 나서는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람 있게 보낼 수 있게 돼 좋았습니다.

자퇴하고 친구도 없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몰랐던 저에게 드림센터는 친구도 만들어주고 유익한 교육도 해주고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기관입니다. 놀이터인턴십도 좋은 친구를 만들게 해준 좋은 곳입니다. 드림센터와 인턴십을 이용하게 될 친구들에게 뭔가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싶거나 다양한 인연을 만들고 싶으면 꼭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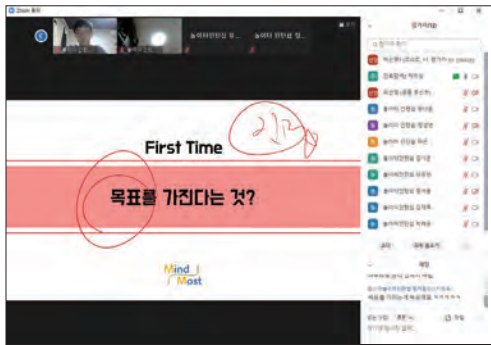


04 놀이터인턴십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준 인턴십

하반기 1기 놀이터인턴십 김재욱

안녕하세요. 저는 놀이터인턴십 하반기1기 참여한 김재욱입니다. 저는 센터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외 인턴십도 다양하게 경험해봤지만 놀이터인턴십이 제일 잘 맞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서비스를 할 수 있었기에 앞으로 사회생활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을 듣지 못한 게 아쉬운 점이었으나,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듣게 된 점이 좋았고, 사회적 교육과 진로탐색을



통해 내 자신을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게 된다면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감도 생기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무기력해져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지루해져 있었는데, 놀이터인턴십을 통해 하루를 바쁘게 지내며 교육을 통해 공부를 하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에너지를 많이 얻은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드림센터를 알게 되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경험을 해볼 수 있어 너무 고마운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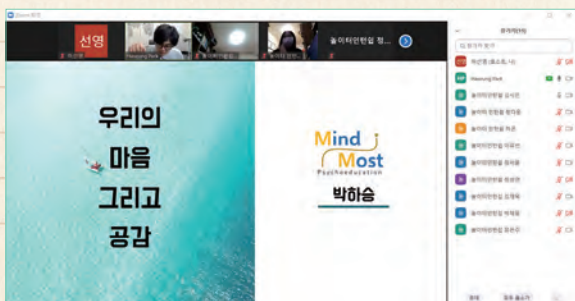
앞으로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막막해서 고민이 많은 청소년 여러분은 망설임 없이 드림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여러 체험과 경험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기 전 준비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4 놀이터인턴십

다양한 경험, 배울 수 있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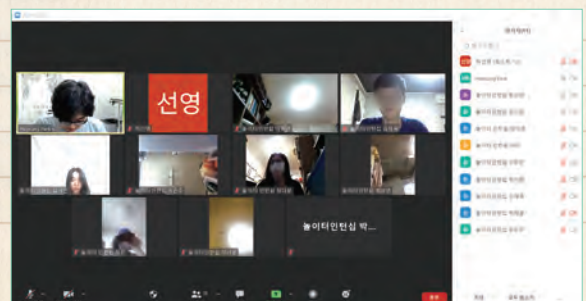
하반기 1기 놀이터인턴십 정서윤

안녕하세요. 저는 놀이터인턴십에 참여했던 18살 유학생 정서윤입니다! 주변 지인을 통해 우연히 인턴십에 대해 알게 되어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자존감 교육이 기억에 남았어요.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터라 더욱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 회의에서 다 같이 분노칸들을 만들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또한 강



의를 들으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배운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집중하기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서 교육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건 나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기 전에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교육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지 드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적극 추천할 것 같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재밌게 정말 좋은 교육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를 존중하게 된 시간

하반기 1기

놀이터인턴십 박채윤

저는 19살 박채윤이고 9월 동안 놀이터인턴십 소속으로 교육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에 발견했고 평소 청소년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 프로그램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비슷하게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심화”라는 교육이 제일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들으면서 느꼈던 장단점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어야 했던 점입니다. 온라인이라서 집에서 편하게 들 수 있다는 장점과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힘들고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공존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건 힘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뿌듯하기도 합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후 큰 차이는 없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나 스스로를 조금 더 존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손님들에게 좋은 인식으로 남겨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더욱 친절하게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어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놀이터인턴십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도움을 줘서 의미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 남을 대하는 방법과 살아가면서 알면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쌓는 시간들

하반기 2기

놀이터인턴십 정지원

저는 학교밖 청소년이고 놀이터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 한번쯤이라도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싶어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던 중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인턴십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인턴십 교육을 받으면서 자존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 부득이한 일을 당했을 때에 대처방법 등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 지식을 더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집이 멀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타는 게 힘들었지만 인턴십 활동이 즐거워 꼭 참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며 시설 관리자가 된 것 같아 내 자신 스스로가 자랑스러웠고 대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활동도 매우 힘들지 않고 쉬워 더욱 편하고 나름 기분 좋게 했습니다. 만약이 이 인턴십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친구가 있으면 걱정 말고 지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4 놀이터인턴십



자신감을 되찾다

하반기 2기

놀이터인턴십 배민경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하반기 놀이터인턴십 참여하게 된 배민경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인연도 만나보고 싶어서 인턴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온라인에서 만나서 다들 어색했지만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금방 친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지루하고 따분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현실성 있는 교육을 받아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인턴십 하기 전엔 모든 일엔 항상 자신 없고 못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인턴십 합격문자를 받고 초심을 찾자라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또래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어울려서 정말 추억으로 자리 남을 것 같습니다. 드림센터를 이용하기 전엔 솔직히 두렵고 다가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가는 기간 동안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04 놀이터인턴십



사회의 팁들을 배워 생각을 넓히다

하반기 2기

놀이터인턴십 양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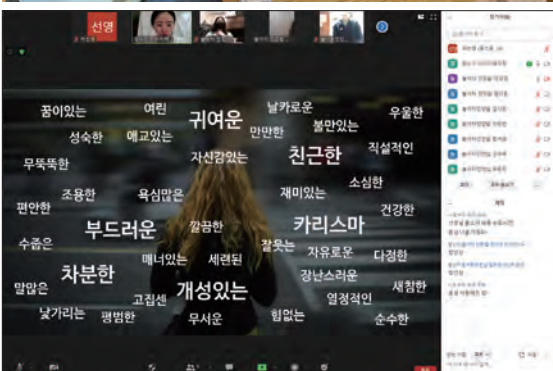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놀이터인턴십 양현진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열심히 찾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열심히 공지를 보고 난 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턴십을 하면서 공수를 배웠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위에 흔히 접하기 쉬운 사람들이 정말 쉽게 힘든 티를 안내고 하시는데, 직접 배우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세가 안 좋아 힘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지만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된다는 점은 다소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사고 싶은 것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쓰기 위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어두웠고 대화를 많이 안했지만 인턴십을 하면서 대화가 늘었고 제 나름 밝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눈치받으면서 있었는데 드림센터에서 이런 활동을 해주셔서 약간 자유롭게 집을 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에게 놀이터인턴십이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에 대한 팁들을 얻고 생각을 조금 더 넓히게 된 활동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텐데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으면 인턴십 활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04 놀이터인턴십



놀이터인턴십 '짱'

놀이터인턴십 활동자립팀 담당자 허선영

올 한해 놀이터인턴십을 담당하며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놀이터인턴십 청소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모여 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센터가 휴관이 되고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면서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 관계형성을 하지 못하고, 드림놀이터를 운영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담당자로서 무척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동하는 상황들에도 잘 적응하며 참여해주고 따라와 준 우리 놀이터인턴십 청소년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히 하반기 2기에는 교육도 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도 진행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한해였습니다.

놀이터인턴십은 청소년들이 직접 지원서를 작성해보고, 면접을 해보는 경험, 시간에 맞게 일어나보기, 수업에 잘 참여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부터 함께 하는 청소년들 간의 소통, 자존감 및 사회성을 키우고 진로를 생각해보는 기회, 다양한 교육들에서 사회의 소양들을 습득해나가는 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유익하고 좋은 추억들이었지요?

드림놀이터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길 바라며 언제나 어디서든 샘이 응원합니다! 놀이터인턴십 최고!



드림센터 기본소양교육

드림센터 기본소양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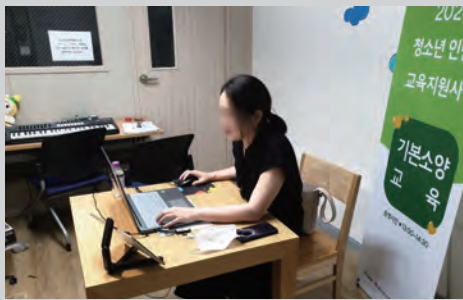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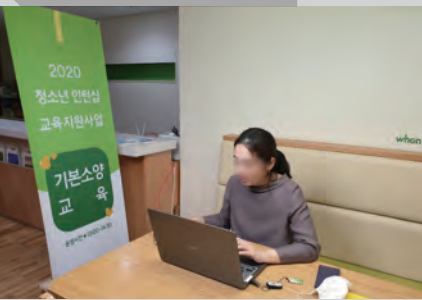
자존감 향상교육



드림센터 기본소양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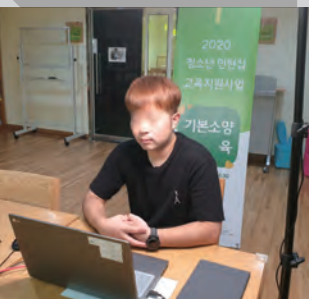
노동인권교육



드림센터 기본소양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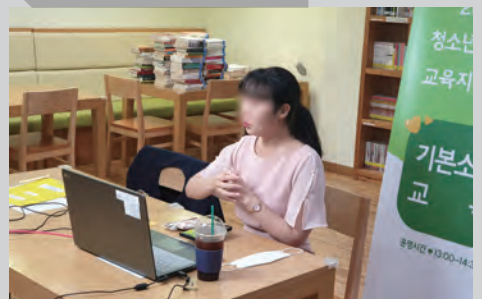
가출예방교육



드림센터 기본소양교육



서비스 마인드 교육



드림센터 기본소양교육



성교육



드림센터 기본소양교육



MBTI 성격검사



드림센터 기본소양교육



취업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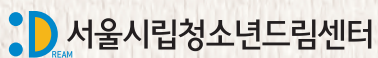


드림센터 기본소양교육



경제교육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tel. 02-2051-8600

www.dreamcenter.or.kr

